[Case Study] 주식회사 진합 그룹웨어

최첨단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의 도약 '준비 완료'

주식회사 진합은 1978년 창립된 자동차 부품 Fastener(화스너) 전문 기업으로, 중국의 생산법인과의 IT 통합이 절실했다. 이에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웨어부터 글로벌 통합 환경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IBM Lotus Notes 기반의 새롬정보시스템 eMATE Groupware를 도입해 글로벌 통합 그룹웨어 환경을 구현했다.

Project Overview

- **도입 배경 |** 글로벌한 통합 IT 환경과 소통 강화, 업무 효율성 개선 필요
- **선정 이유** | Lotus Notes의 복제 기능으로 중국의 열악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한 문제 해결, 안정성과 보안, 다국어 지원 기능 탁월, 유지보수 용이, 기간계 인프라 연동이 용이한 확장성 지원
- **도입 효과 |** 네트워크 환경 열악한 중국 사업장과의 IT 인프라 통합 실현, 중국 사업장과의 업무 커뮤니케이션 강화, 전자 결재 프로세스 체계화
- **도입 제품 |** Lotus Notes/Domino (새롬정보시스템 eMATE Groupware)

주식회사 진합은 1978년 창립 이래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Fastener(화스너)의 연구, 개발, 생산에 주력해 온 국내 제일의 화스너 전문 기업이다. 고객만족 경영을 모토로, 최고의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진합은 세계적인 화스너 업체들의 협력체인 GFA(Global Fastener Alliance)에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GFA는 현재 4개국, 6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해 마케팅, 생산, 기술제휴,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진합이 유일하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진합은 대전 본사 외에 3개의 사업장과 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의 화스너 전문 개발, 생산,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는 자동차 종합 부품 회사를 표방하며 사업 분야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IT 통합 전략 하에 그룹웨어 구축

진합은 지난 몇 년간 IT 운영에 있어, 중국의 열악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과 제약이 많았다. 2003년부터 중국에 JINHAP Fastener사와 JINHAP Metal Products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진합은 이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면서 대전 본사와 중국 사업장 간의 보다 원활한 업무 협력이 가능한 IT 인프라 구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글로벌 통합 환경으로 기존의 IT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진합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웨어를 글로벌 통합 환경으로 재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사업장의 열악한 네트워크 회선 인프라 환경이었다. 56Kbps에서 3Mbps 정도의 네트워크 속도로 인해, 파일을 전송하거나 업로드하는데 2~3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전송 도중에 네트워크가 끊기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

려해 진합은 그룹웨어 인프라 구현시에 대전 본사와 중국 사업장에 각각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사용자들이 대부분 로컬 환경에서 그룹웨어를 이용하고, 필요시에만 접속이 이뤄지는 형태로 구현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가 솔루션 선택시의 최우선 검토 요건이었다.

여러 솔루션을 오랜 기간에 걸쳐 검토한 진합은 IBM Lotus Notes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IBM Lotus Notes 기반의 새롬정보시스템의 eMATE Groupware 제품을 도입했다.

진합의 IT팀 이동렬 팀장은 "다른 제품들의 경우, 원격지의 이중화된 서버 구성이 가능하지 않았다.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곳들도 레퍼런스가 없거나, 또는 2배 이상의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하는 등의 전제조건이 달렸다. IBM Lotus Notes는 이 조건 외에도 성능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열악한 IT 환경, Notes의 복제 기능 '탁월'

진합은 당초 기획했던 것과 같이 한국과 중국에 서버를 별도 구축하고 5분 간격으로 한국의 서버가 중국의 서버로 복제되도록 구성했다. 또한 네트워크 부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내 메일' 기능을 추가해 외부 메일과 별도로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사내 메일은 파일 첨부시에 파일이 서버에 업로드 되고 메일에는 다운로드 링크만 보여지도록 구성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사내 정보에 대한 보안과 메일 용량 관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동렬 팀장은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메일 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기능으로 인해 기대 이상의 상당한 서버 부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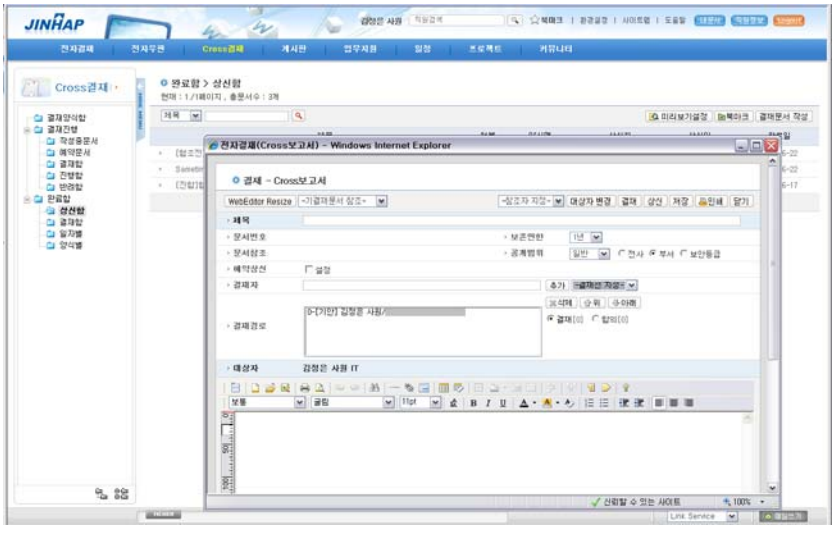
진합은 그룹웨어에 ERP 기능 중 일부를 연동했다. 임직원들이 ERP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조사했는데, 근태 관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 출장, 잔업 등의 근태 관리 기능을 그룹웨어에 추가했다. 사용자들이 그룹웨어에서 직접 교육, 출장, 잔업 등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결재까지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임직원 정보에 '출장중', '교육중' 등의 상태가 표시되는 것은 물론 결과 보고서 작성과 보고서 공유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특이사항 중 하나는 한국과 중국 간의 크로스 결재 프로세스다. 진합은 일종의 볼트로 볼 수 있는 화스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를 전담하는 기업이고 특히 품목 수가 7000여 종에 달할 만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생산과 관련된 결재 처리시 품목이나 수량 등에서 잘못이 발생되면 원가는 물론 생산 일정 등에도 차질이 많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합은 한국의 생산 계획자와 중국의 생산 담당자가 하나의 결재를 각각

승인해야 결재 처리가 완료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그룹웨어에도 이 프로세스를 기능화해서 추가함으로써 크로스 결재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게 됐다.

UC와 모바일 오피스 환경 추가 구현

진합은 구축된 그룹웨어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입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UC 기능과 모바일 오피스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UC 기능의 경우 Lotus Sametime을 추가 도입해서 그룹웨어에 연동시킴으로써 조직도 기반의 메신저 환경과 기존에 도입된 Cisco IPT를 연계한 UC 환경 구성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Sametime의 기본 기능인 미팅 기능을 이용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2011년에 MCU 투자를 통한 1:N 웹컨퍼런스 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오피스는 그룹웨어의 주요 기능이 모두 포함되며, 그룹웨어의 임직원 정보가 스마트폰의 주소록으로 연동되도록 구성한다. 특히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아이폰을 지급함으로써 모바일 오피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배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진합은 이번 Lotus Notes 기반의 신규 그룹웨어가 글로벌 IT 통합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향후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반영해 기능과 활용을 고도화할 계획이다.